

“뉴얼스 재건사업 투자자 모집”



작년 10월 뉴얼스 상업재건지구 리저널센터의 기공식 후 회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앞줄 오른쪽에서 2번째가 변대수 사장, 맨 오른쪽이 그레이스김 부사장이다. 또 이들 뒷쪽에 서있는 이는 노블아웃리치사 윌리엄 헝거포드 사장.

면 한국에서 한 투자이민자가 리저널 센터에 50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 이는 에스크로(escrow: 조건부 날인 승인, 자금을 제3자에게 맡겨 놓고 서비스가 이뤄진 후 전달해 주는 방식) 처리돼 개발자금으로 활용된다.

이 경우 개발업체 및 비즈니스 운영업체는 별도의 입찰 과정을 거쳐 선정되며 투자금은 이 업체들에 대한 융자금으로 활용된다. 이 경우 철저한 담보를 통한 융자 방식이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글로벌인베스트사는 밝혔다.

5년간 철저한 이민 관리

투자 이민의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2년간 철저한 사업 운영 점검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고용 창출과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영주권을 받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개인이 직접 낮은 환경에서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인베스트사와 노블아웃리치사가 각종 이민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5년간 도맡아 사후 관리를 해 준다. 이에 따라 투자 이민 희망

자는 이민 관리비용으로 6만 달러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전체 투자 모집 대상 규모는 수백명에 달하지만 곧바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0명 단위로 시차를 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글로벌인베스트사는 추천했다.

글로벌인베스트사 변대수 대표이사는 “50만 달러 간접 투자 방식만으로도 1년이면 거의 2만여 달러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원한다면 얼마든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낼 수도 있어 신분문제 해결과 수익보장이라는 1석2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는 지난 1970년부터 한국에서 미주공사를 시작으로 76년 도미, 취업과 투자이민 분야에서 일해왔다. 변 대표는 “70-80년대에는 닭공장 취업이민 등 개척으로 1000여명의 취업이민을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인베스트사에서는 매 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컬럼비아 소재 사무실에서 무료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 410-884-7700 >주소 : 8850 Columbia 100 Pkwy. Columbia, MD 21045

천일교 기자

농촌 50만불, 도시 100불 투자땀 영주권

EB-5 비자

EB-5 비자는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에서도 5순위 범주에 속해있는 비자이다.

1990년에 개정된 EB(Employment-Based)-5 비자는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케 하는 비자이며 100만 달러 이상 투자 그리고 10명 이상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발급되고 있다.

농촌지역(Rural Area) 및 실업률이 높은 지역(High Unemployment Area)과 같은 특정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할 경우 50만불 투자가 허용되지만 이 역시 10명 이상 고용 창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농촌지역은 인구 2만 명 이하의 지역을 말하며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미국 평균치 실업률 보다 15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을 말한다.

이외에도 이민국에서 승인한 지역센터(Regional Center) 투자를 통한 EB-5 발급도 가능하다. 지역센터는 1992년부터 실시되었고 미국의 경제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며 이에 연관된 기업체 또는 정부기관에 투자촉진을 위해서 설립된 제도다.

지역센터를 이용하여 투자할 경우 보통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해당되는 이민자(신청자의 가족들과 비 이민 신분자는 제외, 영주권자, 조건영주권자, 피난 및 망명자 등)들을 직접고용 하는 조건의 일반 투자이민과 달리 간접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하며 투자금액은 100만 달러 이상으로 일반 투자이민과 같지만 지역센터투자 역시 농촌 및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였을 경우 50만 달러 이상 투자가 가능하다.